



당진시의회 소식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제24호 | 2020년 9월 29일

※ 당진시의회 소식은 시민여러분께 당진시의회 의정활동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됩니다.

■ 발행인 : 당진시의회 의장 ■ 발행처 :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소 : 31773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 전화 : (041)350-4831 ■ 팩스 : (041)355-1901



제3대 당진시의회 하반기 개원

2022년 6월까지 2년간의 의정활동 본격 돌입

당진시의회가 지난 7월 2일 의회 본회 의장에서 '제3대 당진시의회 하반기 개원식'을 갖고 2022년 6월까지 2년간 임기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최창용 신임 의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과 함께 김홍장 당진시장과 시청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외부 기관장의 별도의 초청 없이 최

소한의 인원으로 규모를 축소해 개원식을 진행했다.

최창용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높은 경륜과 탁월한 식견을 갖추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하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

부 견제와 감시를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며, 화려한 말보다 행동과 실천으로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청하고 소통할 것"이라며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시민의 대변자와 봉사자로서 시민들을 섬기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제3대 당진시의회 하반기 원구성 현황



의장 최창용 (당진시 가선거구)



부시장 임종익 (당진시 나선거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재속 (비례대표)



부위원장 김명희 (비례대표)



위원 서영훈 (당진시 가선거구)



위원 조상연 (당진시 가선거구)



위원 양기림 (당진시 나선거구)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연숙 (당진시 나선거구)



부위원장 서영훈 (당진시 가선거구)



위원 김기재 (당진시 가선거구)



위원 조상연 (당진시 가선거구)



위원 이종운 (당진시 나선거구)



위원 김명희 (비례대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명수 (당진시 나선거구)



부위원장 양기림 (당진시 나선거구)



위원 임종익 (당진시 나선거구)



위원 김명진 (당진시 다선거구)



위원 정상영 (당진시 다선거구)



위원 전재속 (비례대표)

후반기 개원 후 첫 임시회 개최



2020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등 주요 안건 심의·의결

당진시의회가 지난 7월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대 당진시의회 후반기 개원 후 처음으로 제7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당진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20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별 세부안건으로는 운영위원회 소관의 ▲당진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소관의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당진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도



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다.

제76회 임시회 개최

조례안, 동의안 등 총 25건의 안건 심의·의결

당진시의회가 지난 9월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7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조례안, 동의안 등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별 세부안건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의 ▲기획예산담당관, 당진시민 현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법무담당관,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

정과,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경제과,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1건 ▲기후에너지과,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자원순환과,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5건이다.

최창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코로나 19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는 절박한 상



황에 놓여있다.”면서“당진시의회는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여 코로나19의 긴급 지원 정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란다.”고 집행부와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당진땅 되찾기 1인 피켓 시위 실시



시민들에게 역울하게 평택에 빼앗긴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가 당진땅임을 1인 시위를 통해 강력히 호소했다.

이번 1인 피켓 시위는 7월 3일 최창용 의장을 시작으로 7월 20일 김명희 의원 까지 13명의 당진시의원 전원이 릴레이 형식으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제3대 당진시의회는 2018년 10월과 2019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실시했으며, 최창용 의장은 지난 6월 30일 부여군에서 열린 제96차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충청남도 귀속 판결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과 공동으로 발의하는 등 당진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오고 있다.

당진항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판결 촉구 위한 대법원 시위 마쳐

당진시의회 13명 의원들이 후반기 개원과 함께 지난 7월 3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당진항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판결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실시했다. 최창용 의장, 임종억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대법원 정문앞에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관계자, 서울

수해 현장 방문해 복구 활동 전개



당진시의회가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아산시 수해 현장을 8월 12일 방문해 피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아산시는 8월 초 집중 호우로 (8월 7일 기준) 600여 가구의 주택 침수와 100여 동의 상가 침수, 3,000여 농가의 농작물 피해 등 민간 피해를 비롯해 도로 유실, 제방 붕괴와 같은 공공시설 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아산시와 인접해 있는 당진시의

시의회에서는 수해 지역의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최창용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아산시의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활동을 실시했다.

당진시의회에서는 이날 오전 8시 당진을 출발하여 아산시 배방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소정의 재해구호물품을 전달하고, 배방읍 신흥리 소재 민간 수해 농가에 도착해 피해 주민들을 만

나 위로를 전하고 곧바로 수해 복구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시의회 수해 복구팀은 인근 하천 범람으로 물에 잠겼던 농작물 재배용 하우스 내·외 시설물 정비 및 각종 집기 정리 작업과 함께 토양 표면을 덮고 있던 멀칭 비닐 제거 작업, 수해 쓰레기 수거 작업 등을 실시하며 오후까지 복구활동을 진행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위한 지방세법 개정하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률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채택



당진시의회는 7월 24일 제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기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성격의 세금으로서, 전력 공급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을 위해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진시에만 화력발전 10기가 가동 중에 있는데,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 물질을 발생시킨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

적했다.

또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2018년 3월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20년 6월 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로 기존 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 법률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당진시는 늘어나는 세수를 환경개선사업 등 주민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정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세율 인상이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 등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은 환경 관련 피해비용 등 외

부불경제 규모에 비하여 여전히 적은 편”이라며 “2018년 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상 시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세율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수력·원자력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17만 당진 시민과 당진시의회는 국회에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한다.”며 시의회는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 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 현장 방문 실시



8월 13일, 9월 22일 두 차례 지역 현안 점검하고 살펴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명수)가 지난 8월 13일과 9월 22일 두차례에 걸쳐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8월 13일에는 집중 호우로 피해 입은 수해 지역을 방문해 현지 점검을 실시했으며, 수돗물 유출 사태와 관련해 관내 상수도시설물도 함께 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붕괴된 송악읍과 우강면의 배수로 붕괴 현장 및 송악읍 고대·부곡지구 공단 내 도로 사면이 유실된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원인 조사와 함께 신속한 복구 방안

을 논의했다. 이어 수돗물 유출 발견 사태와 관련해 당진시민들 또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관내 생활용수 배수지 14개소 중 행정 배수로와 남산배수로 2개소를 각각 방문해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함께 향후 예방 대책 방안

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지난 9월 22일 제76회 임시회 중에도 한차례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석문면 소재의 스마트 팜 원예단지 조성지와 송산면 소재의 자원순환센터, RE-100산업단지 조성지 등 3곳을 각각 방문했다.

먼저 석문면 일원의 청년창업농 임대형 스마트 팜 원예단지 조성지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

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송산면의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그동안 당진항내 방치돼 있던 폐기물과 관련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폐기물의 처리 방안

윤명수 의원 5분 발언

당진시 수치료 시설 도입 촉구



‘수’치료는 물의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신경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의 균형 조절을 돕고 근 긴장도 및 자세조절에 도움을 주어 재활치료 부문에서 아주 각광 받고 있는 치료 기법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내 약 20여개소의 ‘수’치료실이 운영 중에 있으며, 충남도 내에서는 천안시가 2개의 복지관 내에 ‘수’치료실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의 장애인 인구수는 약 1만여명이며, 이 중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전체의 62%인 6,384명, 뇌손상 및 중추신경계 손상 장애인은 761명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내에 이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공공재활 치료소는 당진시 장애인복지관이 유일하며 재활 치료 방법 또한 지난 10여년 전과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이분들이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를 받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이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장애의 유형 속에 최적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당진시의 책무입니다.

부디 ‘수’치료를 포함한 질 좋은 재활프로그램을 신속히 도입하여 우리 장애인분들의 재활을 돕고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장애인분들이 적극적인 재활을 통하여 활력을 찾고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장애인 재활 치료시설 확충을 적극 건의 드립니다.

김명진 의원 5분 발언

당진시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당진시는 현재 철탑 526기와 송전선로 189km가 건설되어 있어 충남에서는 가장 많은 철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진시는 관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량 48,113 기가와트 중 불과 25%인 11,970 기가와트 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남은 대부분의 전력을 수도권에 송전하고 있고 추가로 여유전력을 수도권에 송전한다는 명분아래 송전탑을 추가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신설되는 송전탑으로 인해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 시키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화력발전소의 분진, 미세먼지와 기존 송전탑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더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동안 당진시민들은 과거 송전탑건설로 타 지역 12.4%의 지중화 비율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당진시 지역 0.47%의 지중화 비율을 감안, 경관 훼손 및 주민들의 피해가 저감되도록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한 목소리로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건설비용이 상승된다.”라는 명분아래 계속해서 당진시민의 요구를 묵살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17만 당진시민과 함께 정부와 한전이 추진 중인 345KV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345KV 북당진-신탄정 송전선로 육상건설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당진시민 모두의 요구인 지중화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최연숙 의원 5분 발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코로나19가 국내 발생 시점부터 전국의 노인 복지관과 경로당은 바이러스 고위험군인 고령층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집단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잠정 휴관에 들어갔고, 기저질환이 있는 노약자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조건 단절과 격리였습니다.

비대면이 일상인 언택트시대에 디지털 취약층의 삶에서 더욱 두드러질 코로나 블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지금 우리사회가 어르신들의 삶을 보듬고 챙길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민에 본 의원도 함께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혜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전을 수립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관계 부서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특별기구와 정책추진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를 통해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수립을 마련하기를 제안합니다.

셋째,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해 공론화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조례제정을 제안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한다면 어르신들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이 준비될 수 있는 전환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영훈 의원 5분 발언

당진시 국가유공자 예우 개선 촉구



우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통해 대한민국이 헤쳐 온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식민지에서 독립을 쟁취했고, 참혹한 전쟁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켰으며,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품위를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12년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공훈 선양사업을 추진 중이며,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유공자 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분들의 공헌에 비하면 지원은 미약한 편입니다.

본 의원은 더 늦기 전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수당인상 등 보훈 관련 예산을 보다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보상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마음을 보듬는 당진시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에 함께 맞서면서 우리는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심이 보훈가족에게 전달되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5분 발언

당진시 보조금
운영개선 촉구

당진시의회에서 가장 중요시 하며 많이 다루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이 어려운 당진시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보조금 수령과 사용의 부정문제입니다.

지방보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짚어본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다든지, 실제 수행하지 않은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며, 한 개의 사업을 이종으로 지출하는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 집행부의 지도 감독은 매우 허술하기만 합니다.

이는 매년 지급해 온 보조금에 대한 관행을 유지해 오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온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함께 보조금을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고 정치 세력화해 공무원과 당진시를 쥐고 흔드는 일부 단체와 법인의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발언은 지금 여기서 누구를 탓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잘못 된 게 있으면 힘을 합쳐 바로 잡아가자는 것입니다. 보조금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뚜렷한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당진시와 의회, 시민이 함께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사용되도록 효과를 분석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고, 보조금이 올바르게 운영 되도록 전면적인 검토와 공론화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윤명수 의원 5분 발언

당진시
자원순환교육
활성화 촉구

지난 2017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약 86.4%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재활용선별센터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활용률은 현저히 떨어져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약 40%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재활용을 위해서는 가정마다 재활용품의 이물질을 세척, 제거하여 분리 배출하여야 하지만 우리의 작은 무지와 무관심 속에 단순한 분리 배출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매립하는 대신 순환해 사용하면 천연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재활용 쓰레기 소각량을 줄인다면 그만큼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어 기후변화 대응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올바른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식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재활용품별 분리수거 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우리 시민들께 널리 전파하여 주십시오!

둘째,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체계적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포함한 각급 학교 등에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진의 시민과 학생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자원순환체험관을 우리 시 재활용선별센터 인근에 건립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상연 의원 5분 발언

공론의 장을 운용할 제도가 필요

권력은 정보통제에서 나옵니다. 정보통제는 정보해석 권한을 부여하고 정보해석 권한은 바로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는 시민에게 권력을 되돌려 주는 일입니다.

행정이나 대의제 기구가 정보를 독점하고 그 정보해석의 권위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대의제 기구가 법에따라서 공익적인 판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의문을 갖는 시민은 있습니다. 행정의 판단이 가장 합리적이고 선한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에 모두가 동의하진 않습니다.

현재 당진청소년재단이 공론화 부족 논란에 휘말려 있습니다. 석문 및 송산산단의 산업폐기물처리장은 공공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진 시민 촉구단 설립으로 투여되는 세금이 충분한 공익을 거둘 것인지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찬반 선호조사라는 다수결로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계층, 성별, 소득, 나이 등이 잘 고려되어 선정된 구성원들이 충분한 토론과 학습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그 실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진시는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이 공론화의 장에서 시민들이 그들이 만든 룰을 지키며 치열한 토론을 하게 해야 합니다. 시민이 제3의 대안에 합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당진시는 이런 공론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 유명무실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열린 민원 법정 운영 지침을 대신할 가칭‘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어 당진시민들이 갈등을 통해 제3의 합의를 이끄는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75회·제76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 의안 : 총건(조례안21건, 동의안2건, 의견제시3건)
- 처 리 : 원안가결 22건, 수정가결 4건

| 처리 구분 | 의안명 | 발의자 | 처리 결과 | 처리 구분 | 의안명 | 발의자 | 처리 결과 |
|-------|--|--------------|-------|-------|--------------------------------------|-------------|-------|
| 조례안 | 당진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명회 의원 외 12명 | 원안의결 | 조례안 | 당진시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윤명수 의원 외 5명 | 수정의결 |
| 조례안 |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양기림 의원 외 5명 | 원안의결 | 조례안 |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당진시장 | 원안의결 |
| 조례안 |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당진시장 | 수정의결 | 조례안 |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당진시장 | 원안의결 |
| 의견제시 | 합덕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당진시장 | 찬성의결 | 조례안 |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당진시장 | 원안의결 |
| 조례안 | 당진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당진시장 | 원안의결 | 조례안 |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당진시장 | 원안의결 |
| 조례안 | 당진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당진시장 | 원안의결 | 동의안 | 당진시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 사무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 당진시장 | 원안의결 |
| 조례안 |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정상영 의원 외 5명 | 원안의결 | 조례안 |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당진시장 | 원안의결 |
| 조례안 |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 김기재 의원 | 원안의결 | 동의안 | 숲해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 당진시장 | 원안의결 |
| 조례안 |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상연 의원 | 원안의결 | 조례안 |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당진시장 | 원안의결 |
| 조례안 |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이종윤 의원 외 5명 | 원안의결 | 의견제시 | 2025년 당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당진시장 | 원안의결 |
| 조례안 | 당진시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명회 의원 외 5명 | 원안의결 | 의견제시 |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당진시장 | 원안의결 |
| 조례안 | 당진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영훈 의원 | 수정의결 | 조례안 | 당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당진시장 | 원안의결 |
| 조례안 |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명진 의원 외 5명 | 원안의결 | 조례안 | 당진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 | 당진시장 | 원안의결 |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마스크 착용하기 · 자주 손씻기 · 사람많은 곳 가지 않기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당진시의회
DANGJIN CITY COUNCIL